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으로 본 만화 ‘몬스터’ 분석 -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

- I. 서론
- II. 라캉의 욕망 이론
- III. 욕망이론과 ‘몬스터’ 분석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박혜리*

초 록

본 연구는 자크 라캉(J. Lacan)의 정신분석 이론을 토대로 만화 『몬스터』를 분석하였다. 자크 라캉(J. Lacan)은 프로이드(S. Freud)의 정신 분석학 및 사회 문화학을 통해 새로운 정신분석 이론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론적 배경의 주된 이론은 ‘욕망이론’으로 인간의 욕망을 분석한 이론이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욕구와 요구로 구분하였으며, ‘인간의 욕망은 곧 타자의 욕망’이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가진다. 자크 라캉(J. Lacan)은 주체 및 타자의 관계에 대해 깊이 연구를 하였는데, 그는 이것을 상상계(거울단계)와 상징계(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그리고 실재계(욕망하는 주체)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자크 라캉(J. Lacan)이 주장한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우라사와 나오키의 만화인 『몬스터』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정신분석학을 기본으로 한 욕망이론을 통해 만화 작품을 분석하여 어떤 새로운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만화 『몬스터』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 질적 연구의 분석 방법을 차용하였으며, 그 분석 방법은 ‘지오르지(Giorgi, 1985)가 고안한 기술현상학적 분석’이다. 이 분석 방법을 통해 『몬스터』의 배경 및 등장인물, 상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지오르지(Giorgi, 1985)의 이론과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을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해 욕망이론과 연관된 의미단위 및 구성요소를 구분한 결과, 첫째, 동일시, 둘째, 욕망의 재현, 셋째, 소외, 넷째, 고유한 욕망과 자유, 네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위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으로 본 만화 『몬스터』는 등장인물인 쌍둥이의 동일시, 욕망의 재현, 등장인물들의 소외감, 등장인물이 가지는 고유한 욕망과 자유 네 가지의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 있었다. 둘째,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 통해 분석한 등장인물들은 어렸을 때의 외상 경험으로 인해 쌍둥이가 서로를 동일시 및 투사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재현하려고 하였다. 또한 재현의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하여 인간이 가진 고유한 욕망과 자유를 완성하고자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하는 자크 라캉(J. Lacan) 욕망이론이 만화 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석이론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심리학 이론을 이용한 만화 분석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생성되어 이 분야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자크 라캉, 정신분석, 욕망이론, 만화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다양한 사회 문제 및 인간관계의 문제들로 인해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자신의 내면 및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대중들은 삶의 질과 관련한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측면의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고자 하고 있다. 이 현상은 대중들이 문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취향을 찾아 누리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소비 형태로 발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¹⁾ 대다수의 현대인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자신의 정서적인 욕구를 잘 채우지 못한다. 그러나 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은 대중문화를 소비하며, 대중문화를 통해 자신을 동일시²⁾하여 욕구를 분출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의 상승은 간접적으로 현대인들의 문화 소비가 증가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보고한 2017년 3분기 국내의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28조 5,867억 5,500만 원, 수출액은 22억 387만 5천 달러였다. 전년도에 대비하여 매출액은 7.3%, 수출액은 28.4%가 증가한 것이다.³⁾ 이런 콘텐츠 소비에 대한 실정은 대중들의 문화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증가하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문화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소비로서 그것을 보는 대중들의 욕구를 대리만족시켜주는 매체이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

*2016년 7월 2일 상반기 종합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 1) 신은주, 이영선, 『문화예술상품 소비자의 가치인식이 추구혜택과 상품속성에 미치는 영향』, ASIA MARKETING JOURNAL, Vol. 14(2), 2012, pp.178.
- 2) 동일시[Identification] -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한 가지나 몇 가지 측면에서 닮게 되는 정신과정이다. <정신분석용어사전 - <http://terms.naver.com> >
- 3) 이현우 외, 『2017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1, pp.12.

는 삶의 원동력인 욕구와 욕망은 인간의 문화 활동을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 욕망에 대하여 프로이트(S. Freud)는 『쾌락원리를 넘어서』에서 인간이 완전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은 죽음뿐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자면, 인간의 욕망은 바로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알 수 있다. 즉, 욕망이론의 기초적인 필요조건은 자기가 보는 시점이 타자를 통해 욕망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과 이를 통해 타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 있다.⁴⁾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은 사회 문화학과 프로이트(S. Freud)의 정신분석학을 기본 명제로 주장된 이론이다. 그는 프랑스에서 정신 분석학자 및 철학자로 독창적인 정신분석자로 인정받았으며, 인간 욕망에 대해 깊게 연구하였다.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은 인간이 하는 문화 활동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이론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정신분석학 및 문학, 연극, 소비문화, 연극 등 그 분야는 광범위하였다.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 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분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을 현대 사회의 이념 및 구조, 이데올로기와 연관 지어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연구(김석, 2006; 황보경, 2009; 진상덕, 노상우, 2015)가 있다. 두 번째,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을 기본으로 인간의 욕망과 문화 콘텐츠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이다(황경섭, 김형기, 2011; 안은희, 이정옥, 2007; 방정민, 2014). 이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을 사회 안의 이념, 사회의 구조 및 이데올로기와 연관해서 연구하였고, 현대 사회 안의 인간의 욕망과 문화 콘텐츠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문화 콘텐츠는 사회적, 문화적, 정신분석학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4) 자크 라캉, 권택영 역, 『욕망이론』, (주) 문예출판사, 1994, pp.11~12.

잘 분석하고 있는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을 통해 효과적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학을 이용해 이미지를 분석하는 선행 연구들은 조형적인 관점으로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심리학 및 이미지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그 대부분이 치료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뿐이었으며, 만화 및 애니메이션 분야 안에서는 심리학 이론을 기본으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심리학을 활용하여 연구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았다. 캐릭터의 성격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양세혁, 좌은정, 2005), 무의식을 통하여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자아성장을 본 연구(정민영, 김재웅, 2014), 이상심리학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안의 캐릭터의 성격 유형을 분석한 연구(이영숙, 김치용, 2005), 페르소나 이론을 이용한 캐릭터 연구(추혜진, 2014)이다. 만화 및 애니메이션 분야에서의 심리학 이론의 활용은 대부분 캐릭터의 성격 및 성장에 관한 분석 내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이 문화 콘텐츠인 만화의 기초적인 이론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만화 및 애니메이션 분야 안에서 심리학 이론을 이용한 연구들이 캐릭터 연구에만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자크 라캉(J. Lacan)이 주장한 욕망이론과 정신분석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그동안 만화 및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관점으로 만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인 내용 분석을 이용하여 우라사와 나오키의 만화인 『몬스터(Monster)』의 배경, 등장인물의 무의식 과정, 상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우라사와 나오키 만화인 『몬스터(Monster)』를 정신분석학적 이론인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을 통해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만화를 분석할 수 있는지 알고자하는 것이다. 또한 심리학 이론

을 활용해 만화를 분석함으로써 ‘심리학적 만화 분석’을 위한 학문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한 의의를 가진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과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만화를 한 편만 선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만화의 분석은 질적 연구인 내용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만화 『몬스터(Monster)』로 선정하였다. 내용 분석이란, 질적 연구의 한 부분으로 작품 안에 내포된 의미 및 내용에 초점을 두어 분류하고, 분석 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질적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용 분석 방법은 ‘지오르지(Giorgi, 1985) 기술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차용하여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몬스터(Monster)』의 배경 및 등장인물, 그리고 상징적 요소들을 찾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지오르지(Giorgi, 1985)의 현상학적 연구의 절차로는 ‘<1단계> 전체를 인식, <2단계> 의미 단위를 구별, <3단계> 연구의 중점적인 현상을 심리학적인 언어로 변형, <4단계> 일관성을 가지는 의미를 통합’으로 4단계로 나눈다.⁵⁾ 이 같은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과 내용 분석을 통해 만화의 특성 요소를 중심으로 의미단위를 구별하였다. 이 구별을 이용해 심리학적인 언어로 변형하였고, 그 의미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이 같은 분석 방법을 위한 만화 선정의 기준은 내용 분석 연구 방법 및 분류를 활용하여 우라사와 나오키의 『몬스터(Monster)』로 선정하였다. 이 만화를 선정한 선정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다.

5) 박혜리, 『만화·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내면아이치료 집단 상담이 고교생의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55~56.

작품 선정 기준	
1.	심리학적인 갈등의 관계가 잘 드러나 있는가?
2.	스토리 안의 배경이 정신적인 외상(psychic trauma) ⁶⁾ 사건이 있어 정신증적인 증상이 드러나고 있는가?
3.	등장인물의 심리적인 현상이 만화 안의 상징적 그림과 언어로 잘 보여 지는가?
4.	등장인물의 무의식적인 욕망이 작품에 잘 표현되어 있는가?

표 1. 연구 작품 선정 기준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을 기반으로 정신분석학적 만화 분석을 통해 만화 안에 담긴 무의식적 의미를 분류할 수 있는가?

둘째,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을 기반으로 만화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심리학적 의미를 통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가?

II. 라캉의 욕망 이론

프로이트(S. Freud)가 주장한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가 금기시하는 욕망을 억압하여 무의식에 숨기고, 그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준다. 라캉(J. Lacan)은 프로이트가 발견하였던 무의식 이론을 기반으로 인간의 욕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주체인 자신이 주체와 타자사이

6) 정신적 외상(psychic trauma) -개인을 정신 병리적인 상태로 몰아넣을 정도의 강한 타격적인 체험을 말한다. 이 경우, 객관적 현실보다도 그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심적 현실을 가리킨다. 이에 의하여 욕구나 관념이 억압되고,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거나 성격적인 비틀림이 생기는 일도 있다.

<편집부,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6, 인용.>

의 관계에서 ‘욕망하는 주체’임을 인정하면 인간과 실재 사이에서 진정한 만남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⁷⁾

1. 욕구, 요구, 욕망

자크 라캉(J. Lacan)은 욕망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욕구에서 요구, 요구에서 욕망으로 이동하며, 이것을 헤겔(G. W. F. Hegel)의 변증법⁸⁾ 적 용어로 설명하고자 한다. 주체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조건’으로 주체의 욕망과 특수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욕망은 바로 요구, 욕구가 서로 완벽히 일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빈 공간으로, 즉, 결여를 의미한다. 욕구와 요구는 욕망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으며, 이로써 욕망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주체의 결여 상태가 된다.⁹⁾

라캉은 욕망이 이루어지는 구조에 대해 욕구, 요구, 욕망 순으로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¹⁰⁾

7) 자크 라캉, 권택영 역, 『욕망이론』, (주) 문예출판사, 1994, pp.13~14, pp.32.

8) 헤겔의 변증법 - 변증법을 인식과 존재에 관한 논리로서 생각한 것은 G.W.F.헤겔이었다. 헤겔은 인식이나 사물이 정(正)·반(反)·합(合)(정립·반정립·종합)의 3단계를 거쳐 전개되어진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3단계 전개를 변증법이라고 생각했다.

<Doopedia, <http://www.doopedia.co.kr/>, 인용.>

9) 김상환, 홍준기 엮음, 『라캉의 재탄생』, (주) 창비, 2002, pp.78.

10) 앞의 책, pp. 73-79.

욕 구
<p>욕구는 순수하게 육체적인 생존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생물학적 필요성이며, 욕구의 대상은 자연적이며, 물질적인 사물이다.</p>
요 구
<p>주체가 타자를 통하여 ‘완벽한 사랑’ 에 대상이 되고자 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을 요구라고 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요구는 완전한 사랑에 대한 것이다. 어린아이는 배가 고플 때 어머니의 젖을 먹으려 하고, 이것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지만, 이 요청은 표현상의 욕구일 뿐,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항상 같이 있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완전한 사랑의 요청은 어린아이에게 욕구의 충족 의미(순수한 동물적 욕구)를 벗어나 상징적, 심리적인 의미를 획득한다.</p>
욕 망
<p>욕망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욕망은 히스테리에서 발견이 된다. 히스테리를 가진 사람은 충족되지 못한 욕망과 이루지 못한 사랑,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어머니와의 분리에서 오는 불안, 아픔으로 고통받는 주체다. 주체로서 히스테리 자는 욕망이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된다. 라캉의 이론에서는 욕망에 대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결여를 의미한다.</p>

표 2. 자끄 라캉(J. Lacan)의 욕구, 요구, 욕망의 정의
(『예술의 정신분석학적 해석』, 2009, 53-55p.)

2.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

사회 문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의 본성을 밝히려고 하고, 그와 동시에 도덕이나 법으로 우리의 무의식적인 욕망을 억압하려 한다. 이 억압은 상처를 만들고 인간은 이것을 해소하고, 보상받기 위하여 대리 적으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예술을 창조한다.¹¹⁾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새롭게 구성한 라캉(J. Lacan)의 욕망 이론은 인간 욕망의 구조를 언어이론을 적용하여 무의식의 주체를 드러낸다. 그것은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성되어 있다” 는 문

11) 김용신, 『예술의 정신분석학적 해석』, 나남출판사, 2009, pp.53-55.

장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라캉(J. Lacan)은 소쉬르(F. Saussure)¹²⁾의 언어관을 적용하여 언어를 은유와 환유로 나누어 ‘차이’를 설명하였으며, 언어를 기표와 기의로 나누어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는 인간의 주체성이 생겨나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으며,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언어체계로 끌어들이며 의식을 설명하였다.¹³⁾ 자크 라캉(J. Lacan)은 이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그 단계는 ‘상상적 단계(거울단계)’, ‘상징적 단계(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실재계(욕망하는 주체)’이다. 주체는 세 단계를 거치며 각각 다르게 구성되며, ‘타자와 동일시’를 통하여 주체가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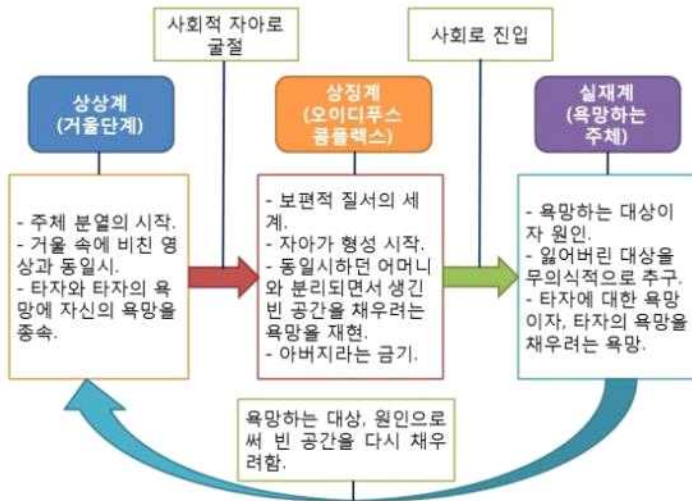


그림 1.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

12) 소쉬르 (F. Saussure) - 스위스 언어학자로 제네바 출생이다. 구조 언어학, 그리고 더 나아가 구조주의의 바탕이 되었다. 또한 언어를 중요한 기초체계로 파악하여 기타의 기호를 포함한 기호 일반을 삶을 연구하는 학문인 과학과 기호학(sémiologie)으로 간주하였다. 최근 이 소쉬르의 이론은 언어학과 구조주의 교육을 통해 사용되고 있다.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인용.>

13) 자크 라캉, 권택영 역, 『욕망이론』, (주) 문예출판사, 1994, pp.15.

<그림 1>을 통하여 자크 라캉이 주장하는 ‘주체형성이론’ 과정을 볼 수 있다. 각각의 단계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기본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인 ‘상상계(거울 단계)’는 그의 욕망 이론에 따르면 주체가 분열되면서 부터 시작한다. 주체의 분열은 엄마의 배 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 분열이 되는 것으로 그 아이는 ‘거울 단계’를 통해 자신이 보고 있는 거울에 비친 영상과의 동일시한다. 아이는 이를 통해 타자와 타자의 욕망 안에 자신의 욕망을 종속시킨다. 이 과정 이후, 어머니와 분리되어 생긴 빈 공간을 채우려고 아이는 욕망을 재현하기 위해 상징계로 진입한다. 이때 거울 단계는 사라지거나 억압되지 않고, 변증법적으로 다시 연결된다.¹⁴⁾ 이 상상계의 단계는 언어의 세계아자, 질서의 세계로서 상징계로 진입하여 사회적인 자아로 굴절되기 시작한다.

두 번째 단계인 ‘상징계(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보편적인 질서의 세계로 언어, 문화로 형성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 자아형성,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는 단계이다. 동일시 된 어머니와의 분리로 생긴 무의식적 상실에 대한 그리움, 욕망인 ‘빈 공간’은 아버지라는 금기를 받아들이게 된다. 프로이트(S. Freud)의 주장대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면서 자신의 내면 안에 내면화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미하면서 생겨났다. 바로 이점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프로이트(S. Freud)와 자크 라캉(J. Lacan)의 해석은 연결된다.

세 번째 단계인 ‘실재계(욕망하는 주체)’에서는 주체가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¹⁵⁾ 그에 의하면 실재계는 인간의 내부와 외부가 동시에 걸쳐있으며, 순수한 자아의 영역(상상계)의 반대편에 있다. 주체에게서 실재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간으로 빈틈이 전혀 없으며, 이곳에서 생존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래서 상징계를 통해 의미의 세계를 형성하고, 실

14) 앞의책, pp.12.

15) 홍준기, 『라캉과 현대 철학』, 문학과 지성사. 1999, pp.186~235.

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완충공간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계에 채워지지 못한 욕망은 결핍이 되어 잃어버린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갈망한다. 타자에 의해 보인 욕망을 주체는 채우고자 하며, 이 욕망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인간 삶의 질이 결정되어 진다.

3.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은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기본 명제를 가진다. 그와 동시에 주체의 응답은 ‘인간의 욕망 및 타자의 욕망’으로 생성이 된다. 그의 정신분석학은 구조주의¹⁶⁾와 달리 ‘인간의 욕망이 타자의 욕망’으로 생성되는 주체적인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것은 ‘환상(fantasme)’으로 명칭 된다. 즉,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명제는 주체적인 응답을 하는 무의식적인 환상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자크 라캉(J. Lacan)이 주장하는 기본 명제인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은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석해 볼 수 있다.¹⁷⁾

첫째, 타자를 통하여 인간은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 인간은 타자에게 성적으로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며, 또한 타자에게 인정받고자 한다. 각각의 욕구의 대상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수성이 있고, 부모든 아이든 어떠한 것을 요구할 때는 그 밑바탕에 완벽한 사랑에 대한 기대가 기초한다.

둘째,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 안에서 생성된다는 의미이다.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보는 타자는 부모다. 아기의 욕망은 부모인 타자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이것은 주체의 형성에 매

16) 구조주의 - 어떤 사물의 의미는 개별이 아니라, 전체 체계 안의 다른 사물들과 관계를 통해 규정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며, 개인의 행위, 인식 등을 궁극적으로 총체적인 구조와 체계에 대해 탐구를 지향한 현대 철학 사상의 한 경향이다.

<Doopedia, <http://www.doopedia.co.kr/>, 인용. >

17) 김상환, 홍준기 엮음, 『라캉의 재탄생』, (주) 창비, 2002, pp. 79~81.

우 큰 영향을 미치며, 타자의 욕망은 인간의 욕망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은 스스로 자율적 존재로 태어나며, 자연스럽게 욕망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타인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깡은 이런 현상을 ‘소외’ 라고 명칭 한다. 인간은 출생 전에도 부모의 욕망(혹은 요구)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타인의 욕망을 통하여 소외되어 있으므로 그 주체는 진정한 주체가 되어 태어날 수 없다.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적인 주체가 되는 방법은 인간을 소외한 타자의 요구에서 해방되어서 자신의 고유한 욕망과 충동을 만족시키고, 발견해야만 한다. 즉,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자의 욕망과의 분리과정을 거쳐야 한다. 타자의 포로가 되면 죄책감, 열등감, 수치심 등의 감정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느끼고자 하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¹⁸⁾

Ⅲ. 욕망 이론과 ‘몬스터’ 분석

만화 『몬스터(Monster)』의 배경은 구동독으로, 당시 고아를 이용하여 인간병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실험하였던 ‘511킨더하임’이 스토리의 배경이다. 『몬스터(Monster)』의 주인공은 ‘511킨더하임’ 출신인 여자 쌍둥이 ‘니나’와 니나가 말하는 그 곳의 이야기를 대리 체험한 남자 쌍둥이 ‘요한’이다. ‘요한’은 어릴 때 머리에 총상을 입어 ‘Dr.텐마’의 수술을 받는다. 이 ‘요한’의 수술을 맡게 되면서 ‘Dr.텐마’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게 되고, 자신의 누명을 벗기려 ‘요한’을 추적한다. 그 과정이 스토리의 전개로 이어진다. ‘요한’은 쌍둥이 동생이었던 ‘니나’가 ‘511킨더하임’에서 살인 병기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간접 외상 경험을 겪는다. 마치 자신이 겪었던 일인 것처럼 ‘니나’와 동일시하게 된 것이다. ‘요한’은 그 사건의 주모자들을 하나씩 살해하고, 해리성 기억상실을 겪고 있

18) 앞의 책, pp. 74.

던 쌍둥이 여동생인 ‘니나’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니나’는 ‘Dr.텐마’와 만나게 되면서 점점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되고, 기억이 돌아오게 된다.

만화 안의 ‘몬스터’는 ‘요한’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기른 ‘괴물(Monster)’이다. 그 ‘몬스터’는 ‘511킨터하임’으로 아이를 보낼 때 머뭇거리던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몬스터’를 마음에 품고, 소외감을 느끼며, 오직 ‘니나’와 동일시된 삶으로만 존재한다. 그는 ‘몬스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진정한 자유인 죽음을 선택한다. 한편, 기억을 되찾은 ‘니나’와 그를 쫓던 ‘Dr.텐마’는 그를 살리려하지만, 끝내 요한은 머리에 총을 겨누고, 쓰러진다.

위와 같은 스토리의 『몬스터(Monster)』는 등장인물의 외상 경험, 정신증적인 행동, 성격적 특성, 상징적인 표현 등 다양한 심리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만화 『몬스터(Monster)』를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을 토대로 내용 분석을 하였다.

1. 심리학적 의미단위 분류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을 토대로 만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만화에 드러난 심리학적 의미단위를 분류하였다. 분류를 위해 앞서 연구 방법에서 설명한 ‘지오르지(Giorgi, 1985) 기술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활용하였고,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몬스터(Monster)』작품 안에서 드러나는 요소 중에서 작품의 배경, 주인공 쌍둥이인 ‘요한’과 ‘니나’, 만화 안에 드러나는 상징적 표현을 범위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지오르지(Giorgi, 1985)의 현상학적인 연구의 방법은 총 4단계를 거쳐 분석하게 되는데, 첫 단계는 전체를 인식하고, 두 번째 단계는 전체 안에서 의미단위를 구별, 세 번째 단계는 의미단위 안의 중심적인 현상을 심리학적인 언어로 변형하는 것, 마지막 단계는 일

관성을 가지는 의미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 방법을 활용해 <표 3>과 같은 방법으로 『몬스터(Monster)』를 심리학적 의미단위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용	만화 전체 스토리를 보며 전체를 인식.	전체 스토리 중 자크 라캉의 욕망이론과 연관된 의미단위를 구별.	구별된 의미단위 안에서 중심적인 현상을 자크 라캉이 표현한 심리학적 용어로 변형.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된 것을 일관성을 가지는 의미로 통합하여 분석.

표 3. 심리학적 의미단위 분류 단계

위와 같이 분석할 만화의 제한 범위를 두어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을 토대로 ‘지오르지(Giorgi, 1985) 기술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통해 심리학적 의미단위를 구별하여 추출한 결과, ‘동일시, 욕망의 재현, 소외, 고유한 욕망과 자유’ 총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었다.

2. 욕망이론으로 본 ‘몬스터’ 분석

1) 동일시

동일시에 대해 정신분석학에서는 다른 대상의 것을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를 닮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추출한 심리학적 의미 단위 분류의 첫 번째인 동일시는 주인공 쌍둥이인 ‘니나’와 ‘요한’의 관계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쌍둥이 남아인 ‘요한’은 과거에 쌍둥이 여동생이 ‘511킨더하임’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을 듣고, 여동생의 외상 경험을 대리체험하게 되면서 여동생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여동생인 ‘니나’는 실제로 외

상 경험을 겪고, 해리성 기억상실을 통해 과거를 잊게 되었다. 하지만 ‘요한’은 여동생인 타자의 경험을 자기(self)의 경험으로 인식하여 여동생을 대신하여 그 사건의 관계자들을 하나씩 살해하기에 이른다.

‘요한’의 동일시 행동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하면, 간접적으로 겪은 외상 경험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기제를 발현하여 ‘투사(projection)’했을 가능성이 높다. 투사(projection)는 자기가 원하지 않던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자기 안의 내적 대상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⁹⁾ 이 개념은 보통 자신과 타자의 심리적인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프로이트(S. Freud)에서 시작된 대상 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²⁰⁾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요한’의 투사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 쌍둥이의 엄마가 ‘511킨더하임’에 쌍둥이 중 누구를 보낼지 머뭇거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요한’은 엄마가 ‘니나’가 아닌 자신을 그곳에 보내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또 실제로 자신을 버린 엄마와의 경험을 감당해내지 못한다. 결국, 이 안에서 느꼈던 ‘요한’의 화, 분노, 불안감, 외로움, 공허감 등의 감정은 모두 다 억압되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인 ‘니나’의 감정으로 투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요한’의 내면 안의 감정들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투사의 기제를 발휘하며 점점 증폭되었고, ‘니나’와 동일시(Identification)하게 된다. 동일시(Identification)란,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인 ‘자기표상(self-representation)’과 주체가 생각하는 내적인 대상의 이미지로 불리는 ‘대상표상(object-representation)’이 융합된 이미지이다.²¹⁾ 이 심리적인

19) N.Gegory Hamilton, 김진숙·김창대·이지연 공역,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 자기와 타자』, 학지사, 2007, pp.96.

20)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 - 현재 인간관계가 과거에 형성되었던 인간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 <심리학용어사전, 한국심리학회 <http://www.koreanpsychology.or.kr>>

21) N.Gegory Hamilton, 김진숙·김창대·이지연 공역, 『대상관계 이

기제는 대상 관계이론 뿐 아니라, 앞서 설명하였던 자크 라캉(J. Lacan)의 거울 단계인 상상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표 4. [몬스터] 특별판 13-14권

라캉은 거울 단계에서 거울 안의 자신의 모습은 생후 6~18개월 사이에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거울 단계에서 건강한 자기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요한’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은 경험을 통해 자신과 쌍둥이인 ‘니나’의 행동을 모방하며 자신을 규정한다. <표 4>의 요한의 대사를 통해서도 그러한 행동 양식을 볼 수 있다. 즉, ‘요한’은 ‘니나’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강제적으로 부각하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쌍둥이들은 일종의 사회적인 상관화작용을 거쳐 상호 동일시를 경험한다. 이것은 바로 자아와 타자가 융합되는 거울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 <그림 3>과 같다.²²⁾

론과 실제 - 자기와 타자』, 학지사, 2007, pp.105.
 22) 자크 라캉, 권택영 역, 『욕망이론』, (주) 문예출판사, 1994, pp.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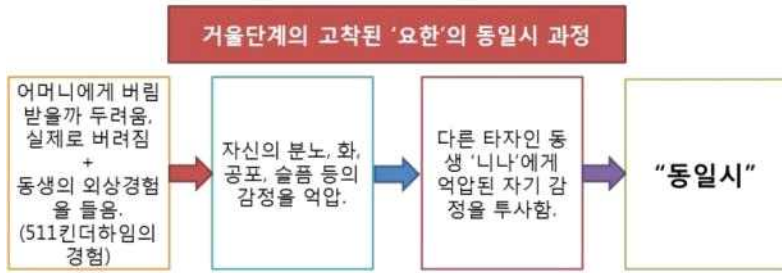


그림 3. 거울단계에 고착된 ‘요한’의 동일시 과정

거울 단계 안에서는 서로 구별되지 못한다. 자기가 곧 타자이자, 타자가 곧 자기이다. 어린아이는 타자인 거울 이미지, 어머니와 자신을 융합하여 대상을 동일시한다. 이런 관계 안에서 고착되어온 어린아이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규정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만드는 공동의 상징계적인 기반을 다질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은 거울에 비치는 ‘나나’의 모습을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로 느꼈을 것이다. 그는 실제로 그것이 다른 주체임을 모르고 있다. ‘요한’은 ‘나나’와 동일시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나나’와 병합하고, 동일시하여 자신의 분노, 화, 슬픔 등의 감정들이 자신의 것인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오직 쌍둥이 여동생인 ‘나나’와 관계에만 집착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

2) 욕망의 재현

거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주체는 자신의 방법으로 주체와 그를 둘러싼 현실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려 한다. 주체는 스스로 투사한 이미지를 ‘나’라고 인식한다. 자신이 투사한 이미지는 완성되기 위하여 자신의 성숙함을 기대하지만, 허상을 만들었다.²³⁾ 거울 단계의 주체는 타자 및 타자의 욕망을 자신의 욕

23) 앞의 책, pp.42~43.

망 안에 종속하여 사회적 자아로 분열한다.

『몬스터(Monster)』안 에서 ‘몬스터’는 ‘요한’에 마음속에 살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로 이 존재는 쌍둥이 여동생인 ‘니나’ 또한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이다. ‘요한’에게는 사회적 자아로 분열된 허상으로 욕망이 재현된 마음의 병이고, ‘니나’에게는 잃어버린 끔찍한 과거의 외상 경험이다. 아래의 <표 5>를 통하여 만화 안에서 ‘몬스터’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p>* 요한이 표현한 글 : ‘구해줘! 내 안의 몬스터가 터져 버릴 것 같아!’</p>	<p>* 나레이션 :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악마였습니다.’</p>

표 5. [몬스터] 특별판 3-4권, 13-14권

욕망 이론에서 무의식 안에 있는 히스테리적인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것은 분리에서 오는 아픔과 불안이다. 즉, 자크 라캉(J. Lacan)이 주장한 욕망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결여이다. 이 채우지 못하는 결여는 태어날 때 어머니와 분리되어 생겨난 ‘빈 공간’으로 인간은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대상들과 연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인간이 욕망하는 대상은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나 허구에 불과하다.²⁴⁾

24) 노현지, 이용일, 『자크라캉의 욕망이론 관점에서 본 관음증에 대한

이런 점에서 ‘몬스터’는 자크 라캉(J. Lacan)이 주장하는 허구적 존재이다. ‘몬스터’는 무의식적 환상으로 만화의 제목뿐 아니라, 전반적인 스토리 안에 드러나 있다. ‘몬스터’의 존재는 만화 안에서 정신증적 증상으로 표현되었으며, 자크 라캉(J. Lacan)과 프로이트(S. Freud)의 표현을 들자면 신경증으로 볼 수 있다. 프로이트(S. Freud)는 신경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성적 인 본능 및 충동이 무의식에 고착화 되면서 형성된 외상적인 경험에서 시작한다고 설명한다. 외상적 경험은 다양한 정신증적 증상을 발현하는데, ‘요한’의 경우 이상심리학 DSM-5²⁵⁾의 진단 기준으로 보면, ‘몬스터’는 조현병(schizophrenia)²⁶⁾의 현상이거나, 해리성 정체감 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²⁷⁾로 진단될 수 있다.

자크 라캉(J. Lacan)은 신경증의 원인을 ‘억압’이라고 보고 있다. 감정과 생각이 억압되면 의식으로부터 밀려나 히스테리 적 증상을 보이거나, 아무런 감정을 불러내지 못할 경우 강박증 적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욕망이론은 신경증이 환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분열된 주체가 강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²⁸⁾ 이런 점에서 ‘요한’과 ‘니나’의 경우 둘 다 ‘몬스터’라는 환상으로 분

시각적 해석에 관한 연구-정신분석학에 기초한 패션 진(jeans) 영상광고를 중심으로』, 디자인지식저널 Vol.26, 한국디자인지식학회, 2013.6, pp.57.

25) DSM-5 -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며, 정신질환을 진단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어 관련 기준들을 분류하는 정신질환 분류법이다.

<APA 저, 권준수, 김재진, 남궁기 역,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학지사, 2015. 인용>

26) 조현병(schizophrenia) -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사고와 언어를 비롯해 여러 부적응적 증상을 나타내는 매우 심각한 정신장애이다.

<심리학용어사전, 한국심리학회 <http://www.koreanpsychology.or.kr>, 인용.>

27) 해리성 정체감 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 정체성 결여 문제로 인해 자신이 누군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자신을 다수의 인격으로 경험하는 장애이다.

<심리학용어사전, 한국심리학회 <http://www.koreanpsychology.or.kr>, 인용.>

28) 김상환, 홍준기 엮음, 『라캉의 재탄생』, (주) 창비, 2002, pp.73~79.

열린 주체가 강조된 현상을 겪고 있다. 외상 경험으로 인해 감정이 억압되었고, 고착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쌍둥이들은 상황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며, 소외감을 느낀다. 오직 거울로 보는 상대의 모습만 동일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다. 바로 이런 점은 특히 ‘요한’에게서 더 잘 볼 수 있으며, 그의 대사와 행동에서도 그가 항상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소외

(1) 거울단계에서의 소외

거울 단계에서 자신의 모습을 통일된 전체로 인지하는 과정은 욕망이론에서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 이중적인 의미는 해방적이라는 것과 소외 적이라는 것이다. 거울을 보고 자신을 인식하는 현상은 주체가 ‘자기(self)’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해방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모습들은 자기의 외부 모습에서 얻은 것임으로 필연적으로 소외적 이다. 이 관점에서 쌍둥이들이 본 자신의 자아는 오직 상대 쌍둥이를 통해서만 형성되었으며, 거울에 비친 이미지(상대 쌍둥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라캉(J. Lacan)은 거울이라는 것이 타자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된 자아라는 것을 강조한다. 즉, 동일시 과정을 떠난 그 자체로 ‘자기(self)’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표 6. [몬스터] 특별판 7-8권

‘요한’은 자신의 어둠을 인지하고, 마음속의 소외감을 표현한다. 그 부분은 위의 <표 6>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는 ‘니나’를 통해 본 거울의 이미지로 자아를 형성하여 항상 소외적이며, ‘니나’도 기억상실증으로 잃어버린 나를 통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몬스터’는 이러한 대체적 환상으로서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고독, 억압된 감정 및 기억으로 고독이란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 ‘이름이 없는 아이’의 소외

자크 라캉(J. Lacan)은 인간이 말하는 주체가 되었을 때, 거세 및 결여를 부과하는 것이 언어라고 주장한다.²⁹⁾ 라캉이 설명하는 상징계에서 오이디푸스 단계의 아버지는 어린아이로부터 욕망을 빼앗고, 어머니로부터는 남근적 대상을 빼앗는다. 이 아버지의 행동은 휘방꾼의 태도로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금지와 법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버지와 동일시, 상관화 과정이 이루어져 자아를 획득한다. 아버지는 자녀를 생산하는 역할 뿐 아니라, 언어를 통해 특권을 갖게 된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통하여 한 남자, 그리고 법의 대리인으로서 인정받게 되면 주체는 ‘아버지의 이름’ 또는 ‘아버지의 은유(아버지의 기능을 표현한 기표, 또는 상징계 자리 위로 아버지를 놓는 것)’에 접근할 수 있다. 아이는 아버지와 동일시 과정을 통해 남근을 갖게 되지만, 오이디푸스 발달 과정을 통과하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거세가 발생한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이를 분리해 그를 거세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체가 문명, 문화, 상징의 체계에 들어가기 위하여, 완전한 주체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³⁰⁾

오이디푸스의 해소는 주체에게 이름을 주며, 가족구조 안에서 한 위치를 차지하게 한다. 주체는 이를 통해 자신의 자아 및 주체성으로 상징되는 기표를 받아 오이디푸스 과정에서 해방되

29) 김승철, 『라캉의 무의식과 언어』,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Vol 9(1), 한국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 2007.8, pp.301.

30) 김상환, 홍준기 엮음, 『라캉의 재탄생』, (주) 창비, 2002, pp.45~62.

고, 자아를 실현하게 된다. 이 오이디푸스 발달 과정은 <그림 7>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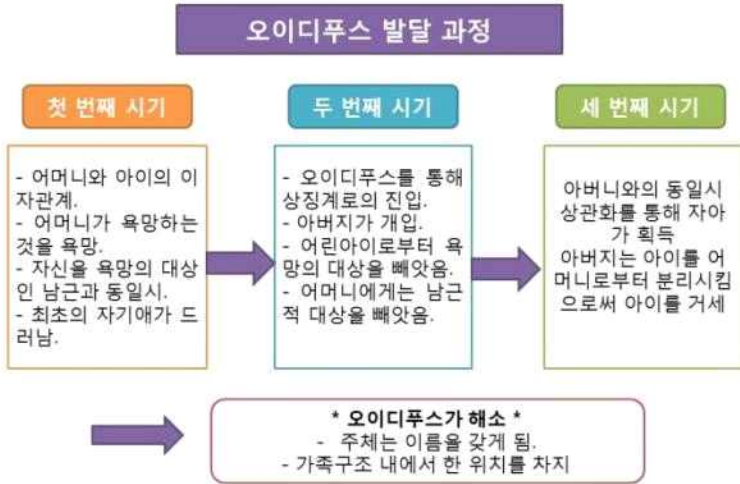


그림 7. 오이디푸스 발달 과정

<그림 7>과 같이 오이디푸스 발달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주체가 이름을 갖고, 위치를 차지하는 일이다. 그러나 ‘요한’ 과 ‘니나’ 는 아버지의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오이디푸스 단계를 거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거울 단계에 머물러 있던 ‘요한’ 은 ‘니나’ 를 자신의 존재로 인식하고, 성인이 되었다. 그는 가족에서의 위치, 자아,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계인 오이디푸스 단계를 거치지 못했으며, 이 부분은 <표 7>에서 ‘이름이 없다’ 라는 표현을 통해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


	
<p>* 요한 : “이름이 없어.”</p>	<p>* 동화책 나레이션 :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이름 없는 괴물이 살았습니다.’</p>

표 7. [몬스터] 특별판 13-14권, 9-10권

주인공 쌍둥이들에게는 아버지라는 대상은 없었고, 오이디푸스 단계를 거치지도 못하여 상징적인 거세를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이 단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아 형성, 가족 안에서의 위치, 소속감을 형성하지 못했다. 또한 서로 분리되지 못한 채, 자아의 혼란 감을 그대로 갖고 자랐고, 부모의 존재감도 거의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욕망 속에 존재하여 서로가 동일시되었고, 완전한 성인이 되지 못하여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았다. 바로 여기서 이름이 가진 의미는 두 쌍둥이의 정체성이자, 자아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시절 외상 경험과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아를 찾을 수 없었고, 언제나 소외된 존재이다.

4) 고유한 욕망과 자유

자크 라캉(J. Lacan)은 문화와 언어로 만들어지는 보편적 질서의 세계를 상징적 질서라고 표현한다. 그 상징적 질서 세계는 의미적인 세계를 만들어 구분하고, 가족관계 규칙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아이는 상징적 질서의 세계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써 이름을 얻으며, 이 이름을 통해 가족 및 사회의 관계 안에서 일정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즉, 아이는 이름을 가짐으로써 타인과 구

별되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름은 언어를 이용한 자신을 지칭하는 ‘지칭사’로 역할을 하게 되며, 자기의 위치를 객관화시키게 된다. 아이는 자기의 모습을 자신 및 타인 앞에 내세우기 위하여 언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³¹⁾

진정한 정체성인 이름을 가지지 못하였던 ‘요한’과 ‘니나’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없다. 특히 ‘요한’의 경우는 정신증적인 증상을 보이면서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였고, 자신을 지칭하는 언어인 이름조차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위치를 객관화시키는 것도 하지 못하였다. 그는 ‘니나’와 동일시되어 자기(self)를 느끼지 못한다. 자크 라캉(J. Lacan)이 설명한 것처럼 이름은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여 자기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머니와 분리되면서 생기는 빈 공간은 인간의 욕망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 대체물을 사용한다. 그러나 자크 라캉(J. Lacan)은 이 부분에 대해 인간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은 죽음이 유일하다고 설명한다.³²⁾ 요한이 자신의 마음 속에 자라나는 ‘몬스터’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도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를 멈추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한의 진정한 죽음은 <표 8>에서 ‘니나’의 대사를 통해 잘 표현되고 있다.

31) 앞의 책, pp.85~107.

32) 자크 라캉, 권택영 역, 『욕망이론』, (주) 문예출판사, 1994, pp.15~21.



표 8. [몬스터] 특별판 17-18권

‘요한’은 억압된 경험과 감정으로 생긴 마음속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동일시된 쌍둥이 여동생 ‘니나’를 위해 ‘511킨더하임’의 관계자들을 살해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욕망을 재현한다. 그러나 결국 ‘요한’은 그 욕망이 채울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행위의 끝에 죽음을 택하고자 한다. 그는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진정한 탈출을 원한 것이다. 즉, 이 ‘요한’의 행동은 고유한 인간의 욕망인 자유를 택하기 위하여 마음속에서 커져 버린 ‘몬스터’와 같이 진정한 자유를 꿈꾸는 행위로 분석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을 토대로 정신분석학 이론을 적용하여 만화 『몬스터(Monster)』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목적을 위하여 ‘지오르지(Giorgi, 1985) 기술현

상학적 분석'을 활용해 질적 연구인 내용 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심리학적 의미단위를 분류하였고, 분류한 의미 단위는 '동일시, 욕망의 재현, 소외, 고유한 욕망과 자유'로 총 4가지로 정리하였다. 이 분류를 기반으로 그 의미 및 내용 분석을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정신분석학적 만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크 라캉(J. Lacan)은 인간이 태어나 문화적, 사회적, 언어적인 주체로 만들어지기까지의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그것은 상상계(거울단계), 상징계(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실재계(욕망하는 주체)이며, 이 단계들을 거쳐 주체는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진정한 주체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바로 이 점에서 자크 라캉(J. Lacan)이 주장한 욕망이론의 기본 명제인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기본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을 기반으로 한 정신분석학적 만화 분석을 할 수 있었다. 정신분석학에 기반을 둔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은 만화 『몬스터(Monster)』를 인간의 욕망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주인공 '요한'이 동일시 한 쌍둥이 동생 '니나'를 대신한 외상 경험과 채울 수 없었던 빈 공간에 자라고 있던 '몬스터'와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행위들은 인간이 욕망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주체의 결여는 어떠한 욕망 적 행위로도 채울 수 없으며, 언제나 소외된 존재로서 욕망을 꿈꾸는 존재이다.

둘째, 질적 연구인 내용 분석을 이용하여 만화 안에 담긴 무의식적인 의미를 분류하고 심리학적 언어로 통합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오르지(Giorgi, 1985) 기술현상학적 분석'을 토대로 내용 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몬스터』의 전체적 스토리를 파악하였고, 두 번째로 욕망이론을 기반으로 스토리에서 중점적으로 보이는 의미 단위를 구별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구별된 의미 단위를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의 중점적 단어를 토대로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했고, 마지막으로 이

언어들을 일관성 있게 의미를 통합하였다. 그 결과, 심리학적 언어의 분류는 ‘동일시, 욕망의 재현, 소외, 고유한 욕망과 자유’로 총 4가지로 분류되었다.

셋째, 정신분석학적 만화 분석을 통해 그동안 표면으로 알 수 없었던 『몬스터(Monster)』 만화의 새로운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거울 단계에서 ‘요한’은 부모와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실제로 버림받는 경험으로 인해 쌍둥이 여동생인 ‘니나’와 동일시하게 된다. ‘니나’는 기억 상일로 외상의 경험을 깊숙이 억압하였고, ‘요한은’ 간접 외상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한 채, ‘니나’의 감정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이 둘은 억압된 마음으로 인하여 이름이 없는 존재, 즉,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존재로 살아오게 되며, 이들의 억압된 마음의 대체물로 ‘몬스터’라는 환상이 생겨난다. 그러나 인간이 어머니와 떨어지면서 필수적으로 생겨난 마음속의 빈 공간은 다른 여러 욕망의 행동으로도 채울 수 없었고, ‘요한’은 인간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고유한 욕망인 자유를 택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려 한다. 결국, 그들은 자아 정체성 없이 언제나 타자의 이미지 안에서 규정되었고, 언제나 고독 속에서 혼자 기다리며,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

본 연구는 위의 세 가지의 결과를 통하여 자크 라캉(J. Lacan)의 욕망이론이 인간의 무의식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신분석학적인 만화 분석을 통하여 만화의 외면이 아닌, 주인공의 심리나 상황, 배경 등을 무의식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이론을 이용한 만화 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석 방법이 앞으로 연구될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다. 또, 이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관점에서 만화를 분석하는 새로운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김상환, 홍준기 엮음, 『라캉의 재탄생』, (주) 창비, 2002.
- 김용신, 『예술의 정신분석학적 해석』, 나남출판사, 2009.
- 이재훈, 『정신분석용어사전』, 서울대상관계정신분석연구소[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 자크 라캉, 권택영 역, 『욕망이론』, (주) 문예출판사, 1994.
-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 편집부, 『간호학대사전』, 한구사전연구소, 1996.
- 홍준기, 『라캉과 현대 철학』, 문학과 지성사, 1999.
- APA 저, 권준수, 김재진, 남궁기 역,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학지사, 2015.
- N.Gegoryy Hamilton, 김진숙·김창대·이지연 공역,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 자기와 타자』, 학지사, 2007.

2. 학위 논문

- 박혜리, “만화·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내면아이치료 집단 상담이 고교생의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5)

3. 학술지

- 김석,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하는 기계 : 라캉과 들뢰즈의 욕망이론」,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 29(2006), 한국현상학회, pp.173-202.
- 김승철, 「라캉의 무의식과 언어」,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Vol 9(1/ 2 007.8), 한국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 pp.287~312.
- 노현지, 이용일, 「자크라캉의 욕망이론 관점에서 본 관음증에 대한 시각적 해석에 관한 연구-정신분석학에 기초한 패션 진(jeans) 영상 광고를 중심으로」, 『디자인지식저널』 Vol.26(2013.6), 한국디자인지식학회, pp.55~64.
- 방정민, 「한강 소설, 「몽고반점」 연구 : 라캉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에로티시즘과의 상관관계 연구」, 『용봉인문논총』 Vol. 45(2014),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59-89.

- 신은주, 이영선, 「문화예술상품 소비자의 가치인식이 추구혜택과 상품속성에 미치는 영향」, 『ASIA MARKETING JOURNAL』, Vol. 14(2/2012), pp.178.
- 안은희, 이정옥, 「실내건축의 욕망유형을 통한 욕망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라캉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 16(2007), 한국실내디자인학회, pp.21-30.
- 양세혁, 좌은정,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타난 캐릭터 성격구조의 이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5(2/2005.4), 한국콘텐츠학회, pp.123-136.
- 이영숙, 김치용, 「이상심리학에서 본 애니메이션캐릭터의 성격별 유형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 6(4/2005.12),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pp.223-227.
- 정민영, 김재웅,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의 무의식을 통해 바라본 자아 성장에 대한 연구 -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코렐라인>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Vol. 37(2014. 12),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pp.287-306.
- 진상덕, 노상우,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본 욕망의 교육학적 함의」, 『교육철학연구』 Vol. 37, 한국교육철학학회, pp.157-177.
- 추혜진, 「콘 사토시 작품에서 나타나는 양면성을 지닌 캐릭터의 페르소나 연구 - <퍼펙트 블루>, <망상대리인>,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Vol.35(2014. 6), pp.181-208.
- 황경섭, 김형기, 「연구논문: 현대사회 속 욕망의 이미지가 투영된 미디어 아트 연구- 라캉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 17(2011), 한국디자인문화학회, pp.634-646.
- 황보경, 「사회화된 환상과 욕망으로서의 성과 젠더의 문제: 정신분석적 접근」, 『비평과 이론』 Vol. 14, 한국비평이론학회, pp.97-121.

4. 잡지 및 온라인 자료

- 이현우 외, 「2017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1.
- 심리학용어사전, 한국심리학회 <http://www.koreanpsychology.or.kr>
- 정신분석용어사전 - <http://terms.naver.com>
- Doopedia, <http://www.doopedia.co.kr/>

5. 참고 작품

우라사와 나오키, 『몬스터(Monster)』, 2006.

ABSTRACT

Analysis of comic 'Monster' based on J. Lacan's psychoanalytic theory³³⁾ – Focused on desire theory –

Park, Hye Ri

This study analyzed the comic 『Monster』 based on J. Lacan's psychoanalytic theory. J. Lacan advocated a new psychoanalytic theory through S. Freud's psychoanalytic theories and socio-cultural studies. The main theory of his theoretical background is the 'desire theory' which analyzed human desires. He distinguished human desires as desires and demands and had the basic proposition that 'human desire is the desire of the other'. J. Lacan (J. Lacan) studied in depth the relationship between oneself and others, which he defined by dividing it into an imaginary system (mirror stage), a symbolic system (Oedipus complex), and a real system (desiring subject). Based on these theori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ic 『Monster』 by Naoki Urasawa focused on the desire theory of J. Lacan based on psychoanalysis to examine what new meaning could be extracted.

In order to analyze the comic 『Monster』,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and the method of analysis was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devised by Giorgi (1985). Through this analytical method, the

33) Based on the paper presented in the academic conference on July 2, 2016.

background, characters, and symbols of 『Monster』 were analyzed and content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theory of Giorgi (1985) and the desire theory of J. Lac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meaning unit and components related to the desire theory through content analysis, the contents analysis was divided into four components: identification, reproduction of desire, alienation, and unique desire and freed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n the basis of psychoanalysis, 『Monster』 is classified into four elements, identification of twin characters, reproduction of desire, feeling of alienation and unique desire and freedom of characters based on desire theory of J. Lacan. Second, the characters analyzed by the desire theory of J. Lacan attempted to reproduce their desires through identification and projection of twins due to their traumatic experience when they were young. Also, the characters who felt alienated in the process of reproduction made a tragic ending to complete human desire and freedom to fill in their emptiness.

This result shows that desire theory of J. Lacan based on psychoanalysis can be used as a new analytical theory, a comic analysis which suggested a new mea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new field of research, a comic analysis using psychological theory, needs to be created and further studies in this field are required.

Key words: J. Lacan, psychoanalysis, desire theory, comic

박혜리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만화애니메이션과 박사 수료
(330-720) 충남 천안시 안서동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만화애니메이션과
Tel : 041-550-5251
royearsude@naver.com

논문투고일 : 2018.02.01.
심사종료일 : 2018.03.04.
게재확정일 : 2018.03.22.